

동구보건소 '진료 중단 장기화' 시민들 불편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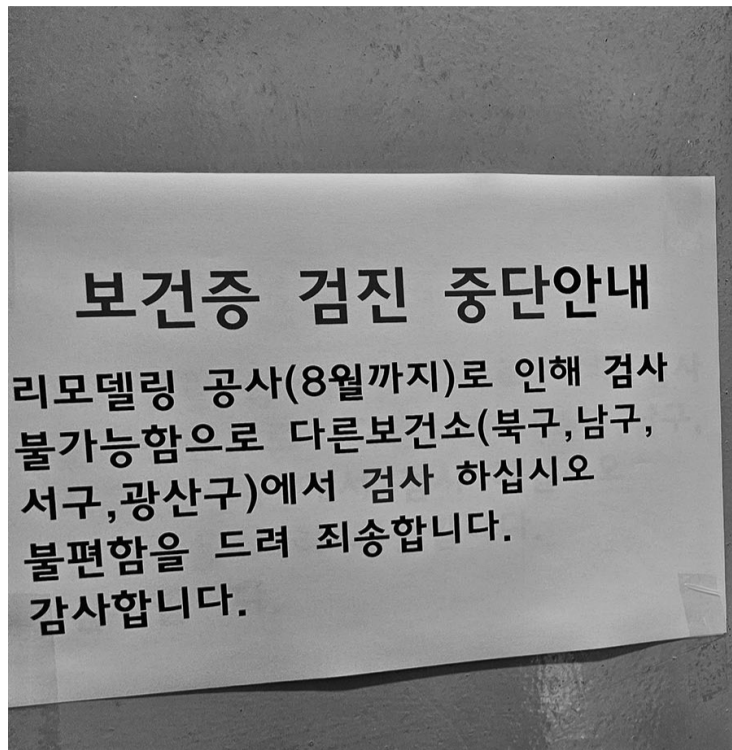
도로 확장·리모델링 공사로 차질 사무실만 이전 의료장비 못 옮겨 의료대란 속 비대면 진료도 못해 예방접종·건강검진 업무 '올스톱'

정부가 전공의 파업 등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광주 동구보건소는 도로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에 따른 동구보건소의 진료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대란 속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외과 파견이 시작된 이후 보건기관 공백 발생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했으나 경증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들은



광주 동구보건소가 구청 리모델링 공사로 보건소 사무실을 옮기면서 보건증 검진 등 진료 업무가 중단된 가운데 보건소 사무실 문 앞에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제로 건물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동구 보건소 사무실은 본관이나 서남동 주민센터로 8월까지 임시 이전했다.

다만 이동이 까다롭고 큰 비용이 발생하는 의료 장비 등은 옮기지 않아 진료 업무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한방치료 등 일부 업무는 물론 비대면 진료 또한 중단됐다.

진료 중단 사실을 모른 채 동구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시민 김모(68)씨는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 의원보다 보건소를 자주 찾는다"며 "어제부터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몸이 떨려 보건소를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을 줄 몰랐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보건소도 겨우 왔는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속 보건소 진료 공백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안전면허 적성 검사 등을 포함해 진료 업무가 중단된 상황으로 여건상 비대면 진료도 못하고 있다"며 "행정업무는 그대로 하지만 진료는 중단돼 인근 개원의 등 일반 병원으로 가시도록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섬·벽지나 원거리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증·만성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주 동구 지역민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구청 리모델링 공사로 동구보건소 사무실은 이전한 대신 진료 장비는 옮기지 않아 진료가 전면 중

단됐기 때문이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도로 확장을 위해 동구보건소가 입주해 있는 구청 별관동 일부를 철거했다.

왕복 4차로인 동구청 앞-조선대 정문 사거리 구간(375m) 도로 폭을 20m에서 30m로 확장하고, 국토부 주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조치다. 도로 확장 공사 부지에 지상 1~4층 규모(연면적 6500㎡) 별관동 일부가 포함되면서 도로 방향 1~4층 760㎡ 일부가 철거되는 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

'뇌물혐의 기소'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공소사실 일부 부인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유치원 선정 특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특가법)·공무상비밀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관계자 A 씨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뇌물로 현금 6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4월8일 매입형 유

치원 선정과 관련된 문건을 A 씨에게 유출했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던 그는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립 유치원은 같은 해 8월 매입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부분에서 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에 뇌물을 전달한 유치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전 시의원은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한 경찰이 소환 요구를 하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2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민섭 기자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 이천시서 발견... 귀가 조치

광주 남구에서 실종된 13세 여중생이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견됐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경기도 이천시에서 실종됐던 A(13)양이 발견돼 보호 조치에 나섰다. 실종 사흘 만이다.

A 양은 지난 15일 남구 주월동에서 버스를 탄 뒤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양

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행적을 뒤쫓았다.

경찰은 경기도 이천시 한 빌라에서 A 양을 발견해 보호 조치에 나섰으며 가족들에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